

주간 농업농촌동향

2014. 4. 28. Vol. 17

■ 농정이슈

미국-일본 정상회담, TPP 원칙 합의 도출 실패

■ 정책브리핑

농식품부, 유관기관과 평가·수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■ 연구지원

201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

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금주의 핫 이슈

〈미국-일본 정상회담, TPP 원칙 합의 도출 실패〉

【미·일 정상회담 이전: TPP 협상방향】

- **[쇠고기 관세 38.5% → 9% 이상 인하]**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교섭의 초점인 농산품 ‘중요 5항목’ 가운데 쇠고기 관세 현재 38.5% → 9%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, 요미우리신문 보도(4.20일)
※ 쌀, 보리, 설탕, 소·돼지고기, 유제품
- **(20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)** 상세한 관세율은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 예정
※ (일본) 축산업에 미치는 충격 줄이는 방식 구상 중, 미리 수입량의 상한 설정하고 물량이 이를 넘으면 인하 전 관세율 적용

- **[돼지고기]** 값싼 수입육의 일본 국내 유통 방지 위해 수입가격이 저렴할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‘차액관세제도’ 자체는 유지되던데 현행 4.3%인 관세율 인하
- **[쌀·보리]** 현행 관세율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
자료 : SBS(2014.4.20.) / 동아일보·매일경제·아시아경제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조선일보·헤럴드경제 (2014.4.21.) / NEWSis(2014.4.22.)

【미·일 정상회담 이후: TPP 합의실패】

- **[미·일 TPP 교섭 타결 실패, 공동성명 발표(4.25일)]** 4.24일(도쿄)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입장차 좁히지 못해 TPP 원칙 합의 도출 실패함에 따라 **공동성명 발표** 보류하고 **각료급 협상 진행**했지만 **결국 TPP 합의 실패**
- **[미·일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이견]** 쇠고기는 현행 관세 38.5% → 20% 정도 인하 방향으로 타협된 반면 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 관세율 놓고 난항

〈미국입장〉	품 목	〈일본입장〉
• ‘차액관세제도’ 폐지 • 일본 자동차 관세 조기 폐지 요구와 관련 2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관세 철폐 유지 • 미국 안전기준 적용해 수출 가능하도록 일본규제 완화 요구	- 돼지고기 - 자 동 차	• ‘차액관세제도’ 유지 • 완성차자동차 부품 2.5% 관세 조기 폐지 요구 • 미·일 자동차 안전기준 상이, 안전기준 정하는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

- **[향후 TPP 전체 협상에도 영향]** 협상을 주도하는 미·일 양국 간 교섭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TPP 전체 협상에도 영향 전망
자료 : KBS·SBS·YTN·경향신문·news1·머니투데이·문화일보·세계일보·아시아경제·아시아투데이·연합 뉴스·이데일리·아투데이·조선일보·중앙일보(2014.4.25.) / NEWSis·연합뉴스·한국경제(2014.4.26.)

농정이슈

진정국면 보이더니 충북 진천 거위농장 AI 확진

- **[충북 진천 거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]** 충북 진천군 거위농가에서 4.21일 의심축 신고,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(AI)로 확진(4.23일)
 - ※ (매몰·살처분) 폐사한 거위 300여 마리 매몰·400여 마리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
 - ※ (이동제한조치) 발생농장에서 반경 10km 경계지역 내 19개 농가 58만 마리
 - **[신고현황]** 4.23일 현재까지 35건(29건 양성 6건 음성), 3.10일(세종시) 신고되어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이후 41일 만에 추가 발생
 - **[장기화 우려]** 이번 H5N8형의 잠복기가 기존 H5N1형보다 2~3배 길다는 학계 주장도 제기돼 온 만큼 AI 진정국면에서 이전처럼 방역 강도를 낮출 경우 AI 재확산으로 인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 - **[경대수 의원, ‘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’ 대표발의, 4.18일]**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국가가 보상금 전액 부담하는 법안 추진
 - ※ 현재 AI 및 구제역 등 예방적 살처분 비용 부담은 국가(80%)·지자체(20%)가 피해 보상 및 방역활동에 있어 일정비율로 분담해 재정적 지원
 - ※ 살처분 관련 부대비용, 소독약품 구입비, 방역초소 운영비, 도계장 일시 폐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은 전액 지자체 부담
 - **(지자체 재정부담 경감)**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대다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,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 크게 감소
 - **[생산자 단체,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요구]** 한편 양계협회·오리협회, 가축전염병 발생 시 폐기처분하는 **사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* 상향조정** 혹은 **계열업체 일부 부담** 요구
 - ※ 사료의 경우 40% 보상금 지급, 보상 제외 금액은 빚으로 남아 금전적 손해 발생
- 자료 : 농민신문·한국농정신문(2014.4.21.) / 농민신문·세계일보·헤럴드경제(2014.4.23.) / 국민일보·NEWSis·아시아투데이·연합뉴스·이데일리·이투데이·한겨레·한국농어민신문·헤럴드경제(2014.4.24.) / 농축유통신문(2014.4.25.)
- 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충북 진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 AI(H5N8) 발생」(2014.4.23.)

<북한, AI로 닭 11만 마리 소각매몰>

- **[북한, 닭 11만 마리 소각매몰]** AI가 확산되면서 닭 11만 마리 소각매몰*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평양발로 보도(4.22일)
 - ※ 3월 AI가 발생한 평양 하당 닭공장과 서포 닭공장에서 각각 8만5천 마리·2만3천 마리
- **[H5N1형 AI 확인]** 3.21~ 24일 사이 하당 닭공장에서 닭 수천 마리 폐사, 3.28일 4km 떨어진 서포 닭공장의 닭들도 폐사하자 역학 조사 벌여 H5N1형 AI 확인
 - ※ 앞서 북한은 4.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AI 발병 사실·현황 통보

농정이슈

- **(감염경로)** 철새 이동의 영향으로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

- **[위생검역 작업 진행]**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, 닭공장의 생산물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, 위생검역 작업 진행
- 자료 : KBS·YTN(2014.4.22.) / 경향신문·연합뉴스(2014.4.23.)

이상기온으로 해충 피해 우려

- **[해충 발생시기 빨라져 피해 농가 우려]** 냉해 속출과 함께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농작물에 피해 입히는 해충 부화속도 빨라져 농가 피해 예상
 - (ex1) 경북도농업기술원, 최근 고령, 구미 경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월동해충인 애멸구 밀도 조사 결과 평년대비 1.5배 ↑
 - (ex2) 충북 영동군, 전년 갈색여치 출몰했던 영동읍 비탄리와 설계리 지역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전년보다 10일 정도 빨리 발견
 - **[초기 방제 및 예방 중요]** 해충이 전년대비 1주일 정도 빨리 발견되면서 적기 소독 및 사군이 권장하는 예방 필요
- 자료 : 서울신문·MBC·연합뉴스(2014.4.22.) / NEWSis(2014.4.23.)

경기지역 소 브루셀라병 확산

- **[소 브루셀라병* 발생 주의보 발령]** 소 브루셀라병이 경기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, 브루셀라병 발생 주의보 발령(4.9일)
 - ※ 소, 돼지, 양, 개 등 많은 동물에 붙임, 유·사산, 고환염을 일으키는 세균성 전염병, 사람에게에는 감기와 유사한 ‘파상열’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
 - **(감염현황)** 경기도에서 3.21일 처음 확인, 지금까지 9농가 106두 확인(안상평택)
 - ※ (‘11년) 490농가 4,070두 → (‘12년) 273농가 2,287두 → (‘13년) 118농가 979두
 - **(감염경로)** 일부 중개상이 브루셀라병 검사 받지 않고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농가에서는 검사증명서 확인 없이 구입
 - **[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확인 당부]** 중개상들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검사 실시할 계획, 축산농가는 소 구입 시 검사 증명서 확인 당부
- 자료 : 한국농정신문(2014.4.21.) / 축산신문(2014.4.25.)

농정이슈

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구는 오히려 감소

- **[' 13년 귀농귀촌가구인구]** 농식품부(4.23일)에 따르면 ' 13년 귀농귀촌가구 및 인구 각각 3만2,424가구, 5만6,267명으로 전년(' 12)대비 각각 20.0%↑18.9%↑
※ 농식품부, 3.20일 브리핑에서 “귀농귀촌 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”, “정부의 각종 정책이 많이 추진된 것이 유인 원인 중 하나”라며 자평
- **[' 13년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가구인구]** 1만923가구, 1만8,825명으로 전년(' 12) 대비 각각 2.6%↓, 4.2%↓
※ 귀농 가구수: ('10년) 5,405가구 → ('11년) 1만75 → ('12년) 1만1,220
- **[' 13년 전원생활 위한 귀촌가구인구]** 2만1,501가구, 3만7,442명으로 전년(' 12) 대비 각각 36.2%↑, 26.1%↑
※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구 증가가 귀농·귀촌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**[' 13년 전체 농가수 및 인구 감소]** 전체농가 및 인구는 각각 114만2,000가구, 284만7,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.8%↓, 2.2%↓
- **[귀농·귀촌 대책 한계]** 정부가 농지 지원 등 귀농에 중점 두고 귀농귀촌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감안하면 효과가 한계에 이른 셈
※ 귀농 인구 중 일부는 전원생활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 규모로 농지 운영하는 사실상 귀촌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귀농인구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
- **(정부, 올바른 인식으로 농업정책 수립 필요)**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점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
※ 특히, 귀농인구 소득·역귀농 실태 등에 대해선 파악 미흡

자료 : 세계일보(2014.4.23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2013년 귀농귀촌 32,424가구(56,267명)로 사상 최대」(2014.3.20.)

정부, 쌀 직불금 수급 요건 완화 추진

- **[정부, 쌀 직불금 수급 요건 완화]** 앞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직불금 수령* 할 것으로 전망
※ (현재) 2년 이상 연속해 1만㎡(1ha) 이상' 경작해야만 쌀 직불금 수급 대상
※ (과거) ('05년) 쌀 직불금 도입 당시 농업인의 농지보유기준 1,000㎡ 이상이면 쌀 직불금 수령 가능 → ('08년) 일부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수차례 쌀 직불금 수령 → ('09년) 신규농에 대해 1만㎡ 기준 허용, 수급 요건 대폭 강화

농정이슈

- **(정부안 마련, 지자체와 논의 거쳐 6월까지 확정)**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작면적 기준을 5,000㎡ 또는 1,000㎡로 낮추는 방안 두고 지자체와 협의 중
- **[수급 요건 문제 제기]** 최근 소규모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작용
※ 현재 1만㎡ 이상인 쌀 직불금 수급 요건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
- **[기대효과]** 소규모 재배농가 및 귀농귀촌인들이 쌀 직불금 수령하게 되면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증가 전망
자료 : 헤럴드경제(2014.4.21.) / 연합뉴스·한국일보(2014.4.22.) / 농민신문(2014.4.23.)

농식품부,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

- **[농식품부, 현장 점검회의 개최, 4.18일]**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식품 수출 현장 점검, 발전방안 모색 위한 대책회의 개최, **농식품 수출 통관 절차 및 서식 간편화 등 관련 규제 발굴 논의**
- **[한류 열풍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위한 지원 본격 돌입]** 정부, 수출 국가별 강점 있는 품목의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해결하는 수출 지원 시스템 가동
 - **(품목별 수출 개척팀 운영 방안, 농식품부)**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할 스타 농식품 대상으로 품목별 ‘수출 개척팀’* 구성
※ 품목별 수출개척팀(6개 품목): 딸기, 토마토, 버섯, 인삼류, 유제품, 감
※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지속, 자체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수출 개척협의회**에 안건으로 상정·해결
※※ 농식품 수출 걸림돌 해소, 적극적인 수출 지원 위해 '14.1월 구성된 민·관 협의체 (정부기관, aT, 수출업체, 전문가 참여)
 - **(해외시장 조사와 수출애로 상담실 운영방안, aT)** ' 17년까지 해외 50개국 100개 품목 수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서비스 제공
 - **(농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 방향, 농진청)**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연구개발(R&D) 및 기술 보급 강화
 - **(해외 동반진출 현황 및 활성화 방안, 롯데마트)** 해외 145개 점포에 농식품 수출기업 동반 진출

자료 : NEWSis·시사뉴스·아시아투데이(2014.4.21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4.24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한류 열풍에 농식품도 인기몰이 박차 - 농식품부, 경기도 고양시에서 현장 점검회의 개최, 수출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-」(2014.4.21.)

□ 농식품부, 네덜란드 농업연구 포럼 개최

- **[「네덜란드 농업연구」 포럼 개최]** 네덜란드의 농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발표·토론을 통해 농업발전모델 도출
 - ※ (운영기간) '14.3~6월(4개월), (주최/주관) 농식품부(식품산업정책관실)/aT·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, (구성) 농식품부, 농진청, 농경연, 대학 등 내·외부 전문가, (진행) 주제 발제 및 토론 후 결과 도출(3회 내외), (성과물) “가칭” 「네덜란드 기술농업 분석 보고서」
- **(추진배경)** 한국농업의 발전모델로 네덜란드 농업이 자주 거론, 네덜란드 농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·논의할 장 마련 필요
 - ※ 네덜란드는 농식품산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 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 강대국으로 도약, 한국 농식품 산업이 네덜란드를 연구 하고 배울 필요
- **(목적)** 네덜란드 농업·농촌 분석을 통한 한국농업의 발전방안 도출
- **(토의내용)** 농업교육, 과학기술정책, 생산자 조직, Food Valley, 수출농업, 농업 트렌드, 한국과의 관계(무역, 투자, 연수, 기술교류)

자료 : 아시아투데이·아주경제·연합뉴스·파이낸셜뉴스·헤럴드경제(2014.4.22.) / 농민신문(2014.4.23.)

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네덜란드 농업에서 배우다 - 네덜란드 농업연구 포럼 본격 가동 -」(2014.4.22.)

□ 전통식품 온라인 판매망 구축

- **[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·동원F&B·소상공인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업무협약 체결, 4.17일]** 전통식품 판로확대 위해 (주)동원F&B 온라인 동원몰에 **사이버 재래시장 개념의 전문관** 개설하고 **홍보 및 판매 편의 제고**
- **[협약내용]** 국가기관이 대형유통업체, 생산자단체와 손잡고 전통식품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위해 상생협력
 - **(농관원)** 전통식품 인증품 사후 관리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관리, 마케팅 컨셉 개발, 홍보 등 총괄 협력
 - ※ 인증현황('13년 말) 370건, 1,122품목
 - **(동원F&B)** 전통식품 전문관 설치, 홍보 배너, 타사 온라인 몰에 링크, 물류 배송 등 판매
 - **(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)** 대표 품목추천, 제품조달, 교환/반품 사후관리, 입점 수수료 정산 등 공급

- **[농관원 적극 지원] 6차산업화의 성공모델로 육성**함으로써 한국 **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**의 전인차가 되도록 적극 지원
- **[기대효과]** 온라인 재래시장에서 **전통식품 판매** 증가할 경우, (원료 농산물 공급 하는 농가 및 업체) 수익 증가로 인해 국내 농산물 소비기반 유지, (소비자) 구매 편의 증대, 지출비용 절감의 메리트가 있어 젊은 주부층의 이용 증가 예상
 - 자료 : 농민신문·농수축산신문(2014.4.21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4.24.)
 - 참고 : 농식품부 보도자료_「위기의 전통식품 온라인 재래시장에서 살린다 - 식품유통업체 동원 F&B, 전통가공식품협회와 협약 -」(2014.4.18.)

□ 농촌진흥청, 기후변화 대응 기초인프라 구축

- **농진청, ‘기후변화대응’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(‘14~’23) 수립**
 - **(목표)**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위기를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,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 마련
 - ※ (중기적) 5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초인프라구축 430억 원, 산·학·연 공동연구 1,180억 원 투입 ⇒ 기후변화 감시능력 제고, 기후변화 적응 생산성 향상,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,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
 - ※ (종료시점) 현재의 선진국 대비 기후변화 기술격차 8.4년을 동등한 수준까지 달성
 - **(비전)** ‘기후친화형 농업구조 확립과 저탄소 농축산업 실현’
- **[4대 추진전략 설정]** 선제적 생산성 변동 예측 강화, 기후적응형 新농법 창출, 이상기상 피해 방지 강화 및 저탄소농업 실현

■ 4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■

분야	주요내용
‘선제적인 작물 생산성의 변동 예측 강화’	• 농업환경요소, 식량 및 원예작물 생산성 및 재배적지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지속 •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,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의 취약성 평가
‘기후변화 적응형 新농법 창출’	• 식량 및 원예작물의 표준재배법 재설정 • 고온, 고이산화탄소 등 내재해성 신품종 육성 • 신소득 열대야열대 작물 개발 • 고온 유래 가축질병 대응기술개발 • 아열대성 새루게 나타난 병해충 및 잡초 정밀예찰 및 조기방제기술 개발
‘이상기상 피해 방지 강화’	•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로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 목표로 30~270m 해상도의 가뭄, 대설, 태풍관련 기상재해 위험지도 12종 작성 완료 • 기상위험 조기경보서비스 2020년 전국 대상으로 실시
‘저탄소 농업 실현’	• 경종,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고도화, 저감기술 개발 •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화석연료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• 농업부문의 新기후체계 대응전략 수립

농정이슈

- **[기대효과]** 국가·지자체 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하는데 활용, 체계적인 실천과제 추진 통해 한국 농업이 기후친화형 농업구조로 탈바꿈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

자료 : 뉴스와이어·식약일보·아시아투데이·에코저널·에코타이거·환경일보(2014.4.21.) / 한국농어민신문(2014.4.24.) / 농민신문·한국농업신문(2014.4.25.)

참고 : 농진청 농촌진흥소식_「농촌진흥청, ‘기후변화대응’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」(2014.4.21.)

〈농촌진흥청, 국제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협력 강화〉

- **[‘14년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 개최]** 농진청,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(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, 이하IRRI)*와 공동으로 벼 관련 국제적 현안 해결 위한 ‘2014년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’** 개최(4.21~22일)

※ 국제농업연구자문단(IGAR, 프랑스본부) 소속 농업관련 15개 국제연구기관 중 하나로 단일작목연구기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업적을 자랑하는 국제연구기관

※※ 197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농진청과 IRRI가 번갈아가며 개최

- **[협약내용]** ‘12~’ 13년에 수행한 협력과제 평가, ‘14~’ 15년 수행할 신규 협력과제 선정

- **(벼 관련 현안 해결 위한 공동연구 강화)** 기후변화에 대비한 벼 신품종 육성, 아열대지역 적응 자포니카형 벼 개발, 비생물적 저항성 및 내병성 벼 품종 육성, 벼 유전자원의 국제적 공동평가 및 활용사업

- **(신규협력과제)** 수량성 극대화를 위한 인디카형과 자포니카형 일대잡종 벼 품종 육성, 수량과 병해충 저항성이 향상된 통일형 벼 품종 개발 등 생물 및 비생물적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강한 고품질·다수확 벼 신품종 육성

자료 : 뉴스와이어·식약일보(2014.2.22.) / 환경법률신문(2014.4.23.)

참고 : 농진청 농촌진흥소식_「농촌진흥청, 국제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협력 강화」(2014.4.22.)

정책브리핑

정책브리핑

농식품부, 유관기관과 정가·수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4.4.25.)

정가·수매 확대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- **[‘정가수매 확대 위한 MOU’ 체결, 4.25일]** 농식품부,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·도매시장법인협회·중도매인연합회·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‘정가수매 확대 위한 업무협약(MOU)’ 체결

- **(목적)** ‘거래 단위 규모화와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가·수매 확대’ 방안 모색

※ 정가·수매매 비율: ('11) 8.5% → ('12) 8.9 → ('13) 9.9 → ('14) 14 → ('15) 17 → ('16) 20

〈정가수매 확대 개념 및 기대효과〉

- (개념)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거나(수매매)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래대상을 결정하는(정가매매) 것으로, '12.2월 농인법 개정으로 정상 거래 원칙
- (추진배경 및 기대효과) 정가수매매를 통해 사전 예약 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가격 및 수급 안정성이 제고되어, 안정적 거래 선호하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증가와 도매시장 활성화 가능

주요 협약내용

- **[기관별 역할분담]** 정가·수매 확대 위한 여건 조성, 적극적 성과 도출 선도
 - **(농식품부)** 제도개선, 농산물유통정보제공, 정책자금 지원, 교육·홍보
 - **(출하단체)** 소속회원 독려 및 정보제공, 정가·수매매 신규품목 발굴
 - **(법인협회)** 정확한 산지의 작황정보 및 소비자 거래정보 수집·제공
 - **(중도매인)** 신규 판매처 지속 발굴, 신뢰성 있는 구매정보제공
 - **(소매단체)** 회원사 대상 홍보 및 신규회원사 발굴을 통한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취급 및 구매 확대

관세청·aT, 농수산물 FTA 활용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□ 관세청·aT(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) MOU 체결

- **[관세청·aT MOU 체결]** 4.23일, 서울 aT센터에서 「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활용 수출지원 위한 업무협약(MOU)」 체결
 - **(협약내용)**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으로 **FTA 활용에 어려움 있는 농수산업**에 대해 **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FTA 활용 촉진**
- **[기대효과]** FTA 집행 전담부처인 관세청과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선도하는 aT가 협력하는 **맞춤형 FTA 활용 지원**으로 **농수산물 수출증대 기여**

□ 주요내용

- **[관세청, aT가 주관하는 국제농식품박람회,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과 연계]** 품목 분류,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1:1 FTA 수출활용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
 - **(FTA별 특혜대상 품목)** 해외 시장진출이 유망한 품목군(群) 발굴 및 FTA 활용 사업계획(Business Model) 개발·확산
 - **(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분야 상호 협력 방안 모색)** 농수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, 농수산물 수출자에 대한 인증 확대
- **[향후 협력사업]** 양 기관은 5월부터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, 점진적 사업 확대

자료 : 관세청(2014.4.23.)

제2차 한·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결과

□ 제2차 한·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

- **[제2차 한·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, 4.22일]** 산업통상자원부,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·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
 - ※ '13.6월 대통령 방중 시 양 부처가 체결한 '한중 경제통상 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(MOU)'에 근거해 국장급 협의회로 구성(연 2회 개최)
 - ※ 참석자: (한국) 이성호 통상협력심의를관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참석 / (중국) 천저우 아주사장(국장)을 수석대표로 관계기관 참석

〈한중 간 교역 및 투자현황〉

- (교역) 2,289억 달러(' 13년)
 - ※ 우리나라 총 교역 1조752억 달러의 21% 차지
 - 대중 수출 시 농식품의 위생안전 기준 및 절차, 의약품의료가화학제품의 인허가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(' 13.6월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)
- (투자) 투자: 48억 달러(' 13년)
 - ※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(1위 미국 54억 달러), 총 해외투자액 241억 달러 중 20% 차지

□ 제2차 한·중 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결과

- **[논의내용]** 1차 협의회(' 13.9.26. 북경)에서 제기된 양측 간 통상현안의 후속조치 점검, 신규 통상현안, 무역·투자 분야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*
 - **(한국)** 중국의 철강재 수출 시 증치세(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) 환급 동향, **농식품 수입 시 불합리한 위생기준 및 검역절차 적용** 등 통상현안 제기
 - **(중국)** 한·중 무역 불균형 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
 - ※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형 투자사업 추진 원활화, 중서부 지역 진출 지원 방안, 중국 해외투자 활성화 계기로 한국에 중국기업의 투자 효과적 유치 방안 논의
- **[향후계획]**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각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 측과 협의, 논의된 올해 협력사업도 더욱 구체화하여 양국 통상관계 발전 위해 노력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4.4.22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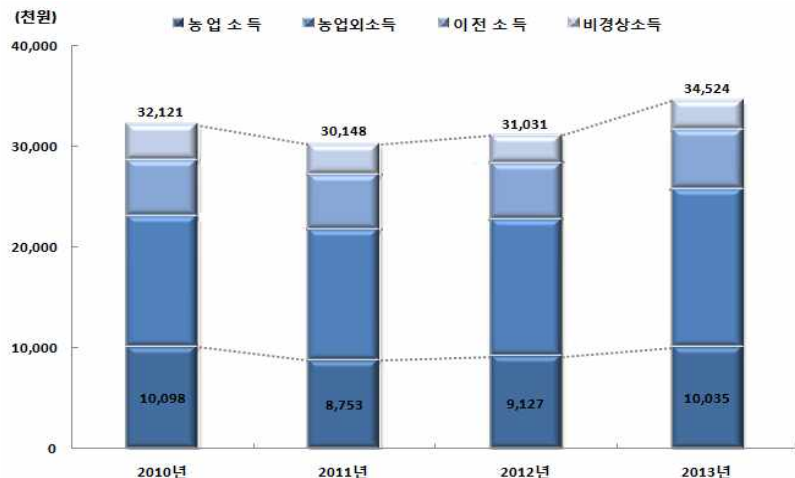
연구지원 201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(2014.4.24.)

농가소득

- **['13년 농가 가구당 총소득]** 3,452.4만 원, 전년대비 11.3% ↑
 - ※ (소득종류별) 농업외소득(15.6%) > 농업소득(9.9%) > 비경상소득(8.7%) > 이전소득(4.1%) 순
- **(농업소득)** 1,003.5만 원, 전년대비 9.9% ↑
 - ※ 농작물수입과 축산물수입(대·소동물,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) 증가에 기인
- **(농업외소득)** 1,570.5만 원, 전년대비 15.6% ↑
- **(이전소득)** 584.4만 원, 전년대비 4.1% ↑
- **(비경상소득)** 294만 원, 전년대비 8.7% ↑

농가의 소득종류별 비중 추이



가계지출

- **['13년 농가 가구당 가계지출]** 3,026.4만 원, 전년대비 10.1% ↑
 - **(소비지출)** 2,418.4만 원, 전년대비 8.4% ↑
 - **(비소비지출)** 608만 원, 전년대비 17.5% ↑
 - ※ 연금 및 사회보험납부금과 가구간이전지출 모두 증가

자산 및 부채

- **[농가자산]** 4억58만 원, 전년대비 1.8% ↓
 - **(감소원인)** 고정자산 3억3,012.3만 원, 전년대비 6.5% ↑, 반면 유동자산 7,045.8만 원, 전년대비 28.0% ↓
- **[농가부채]** 2,736.3만 원, 전년대비 0.4% ↑
 - **(용도별)** 전체의 42.8% 차지하는 농업용 부채가 전년대비 10.7% ↓, 반면 가계용은 28.2% 비중 차지하며 전년대비 10.0% ↑

부문별 지표

- **[전업농별]** 겸업농가에 비해 농가소득, 가계지출, 부채가 더 많음.
- **[주부업별]** 전문농가와 부업농가는 농가평균에 비해 농가소득, 가계지출, 자산, 부채 모두 많음.
- **[영농형태별]** 축산농가의 농가소득, 가계지출, 자산, 부채가 가장 많음.
- **[경지규모별]** 5.0ha이상인 농가의 농가소득, 가계지출, 자산, 부채가 가장 많음.
- **[경영주 연령별]** 50대 농가의 농가소득, 가계지출, 자산, 부채가 가장 많음.
- **[지역별]** 농가소득은 제주도, 가계지출자산부채는 경기도가 가장 많음.
 - ※ (충남·전북·전남) 농가소득, 가계지출, 자산, 부채 모두 농가평균에 비해 적음.

〈농가란?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〉

- 1,000㎡(10a)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
-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구
- 조사기준 시점 현재 120만 원 이상(시가 평가)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통행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